

주사랑교회 소식

1. 환영 및 여는 찬양

주사랑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 주일 낮 10시 45분부터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2. 성결교회주일

오늘은 성결교회 주일로 지킵니다. 120년 전 기독교대한성결교회는
순전한 복음인 중생-성결-신유-재림의 전도 표지를 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희망을 전하는 성도가 됩니다.

3. 떡 애잔 나눔 (수원명성교회)

수원명성교회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작은교회 섬김의 일환으로 떡을
공대해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1인 1봉 가져가주시고, 나머지는
지역 어르신들 섬김과 전도용으로 사용하겠습니다.

4. 구역예배

2025년 5월 29일(목) 정현숙 권사님 가정에서 진행합니다.
다음 모임 : 이가를 관찰 (교회에서 오후 1시 30분에 출발)

5. 아하브코업 정기모임

일시 : 2025년 5월 27일(화) 오전 10:30 ~ 오후 15:00
장소 : 주사랑교회 본당

6. 노방전도

매주 목요일 오후 4~6시까지 교회 앞에서 노방전도를 시작합니다.
(팝콘전도, 슬러시전도, 찬양전도, 가정방문 전도)

7. 성도동정 (건강, 안전, 평안, 행복, 사명, 신앙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오현진(군복무), 이다남(노환), 박영대(노환), 임명순(손발목 인대 회복),
김혜숙 권사(디스크 협착증), 정현숙 권사(근무력증), 김옥화 집사(평안, 가족),
김강준 어린이(치유와 회복, 심리적 안정), 윤라겸 집사(사업), 김주형(사업)
한효성(직장) 한인혜(직장) 정청재(공향장애, 민음과 공홀), 이광근(홈스쿨)
강선주(사업현장, 치과치료)

8. 2025년 5월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음력 4.4 ~ 5.5)

5/08(목)-임명자 집사(-4.11) 5/20(화)-이소은 아남 5/27(화)-문재호 형제
5/28(월)-이다남 집사(-4.30) 5/28(수)-박수진 학생 5/28(수)-이예나 아남

찾아오시는 길 / 매교역 2번 출구방향 50m



주일대표기도

5/25 김혜숙 권사
6/01 정현숙 권사
6/08 박제연 집사
6/15 이광근 안집사
6/22 임명자 집사
6/29 임명숙 집사
7/06 김혜숙 권사

행사계획

날짜	행 사 내 용
05/25	부부주일 성결교회주일
05/27	아하브코업 정기모임
05/29	이만미 산생님 인도(새아파송)
06/01	예수 그리스도 승천의 날 첫날맞이 일식예배(성찬예식)
	여름사역을 위한 준비모임 농어촌 선교주일
06/03	산상기도회 (강남금삼기도원)
06/06	산상기도회 (교동도 자아전망대)
06/08	성령강림주일(오순절) 환경선교주일
06/15	삼위일체주일 통일주일 (교단 북한선교위원회)

주일 사랑 운동

요일	운 행 안 내
주일	교회출발(9:45) ▶ 탐동(10:00) ▶ 화서동(10:10) ▶ 세류동(10:20) ▶ 교회(10:30)
귀가	교회출발(13:30) ▶ 탐동(13:40) ▶ 화서동(13:50) ▶ 동탄(14:20) ▶ 화성군 송산면 용포리(15:00)
평일	담임목사 연락(010-4724-3562)

예배안내

구	분	시	간
주일오전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2부	낮	1:00
주일어린이예배		낮	1:00
토요학생부예배		오후	4:00
주일청년부예배		낮	1:30
수요저녁기도회	저녁	7:30	
금요성령기도회	저녁	7:30	
새벽기도회(월~토)	새벽	5:30	
화요중보기도회	낮	2:00	
목요구역예배	낮	2:00	
Who made the world?	(상당 후 진행)		
Thinkwise(마인드맵)	(상당 후 진행)		
쉐마학당	(상당 후 진행)		



주사랑 8권 21호
창립 2017.11.25

2025년 5월 25일
부활후 다섯 번째 주일 / 성결교회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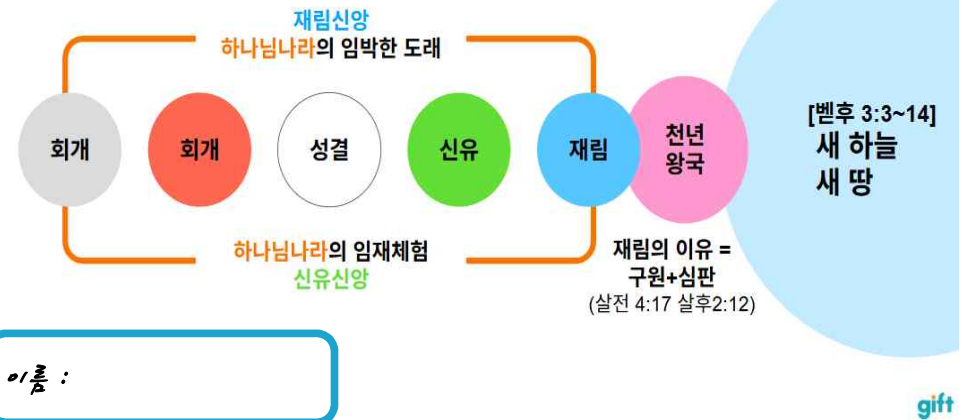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주사랑교회

Jusarang Korea Evangelical Holiness Church

사중복음 비전은 하나님 나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또한 이루시리라
(살전 5:23~24)



주사랑교회 사명선언

- ① 오직 예수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공동체로써
- ②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 ③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 ④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고
- ⑤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다음 세대를 리더로 세우며
- ⑥ 불신자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 ⑦ 민족복음화와 통일선교에 이바지하며
- ⑧ 열방과 세계에 복음으로 선교하는 교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elcome to Jesus Love Church

주사랑교회를 찾아주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담임목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일 오 전 예 배

오전 11시 00분 (성결교회 주일) 인도:집례자

※ 목 도 데살로니가전서 5:23~24 인 도 자

※ 찬 송 가 찬 420장 다 같 이
(너 성결기 위해)

※ 사도신경 다 같 이

※ 주기도문 찬 635장 다 같 이

성시교독 No.27 시편 51편 인도자/회중

찬 송 가 찬 426장 다 같 이
(이 죄인을 완전케)

대표기도 김혜숙 권사

※ 성경봉독 디모데전서 6:11~15 (신 342) 김혜숙 권사

광 고 인 도 자

말씀인도 성결의 은혜를 구하는 삶 담임 목사

십 계 명 출 20:1~17 / 마 22:37~40 인도자/회중

봉헌찬송 찬 181장 다 같 이
(헌금위원 : 박수진 학생)

※ 축 도 담임 목사
(※ 표시는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섭니다)

양기로운 예물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미리 넣어주세요)

십 일 조 : 정현숙 한성결 한은총 / 오동영 임명숙 이기을 임명순 장사라

주정현금 : 김혜숙 문재효 박제연 오동영 임명숙 이광근 임명순 임명자 정애자
한승훈 / 이기을 한정완

감사헌금 : 김옥희(등록감사) 박대성 이광근 박제연(자녀) 전복순 한승훈 임명순
한태민 / 오만자 김강준(치유)

교회학교 : 이재아 이재우 이재희 임명순 한성결 한은총 한태민 한희락

구역헌금 : 김혜숙 박제연 임명순

일천번제 : 강선주(723일)

전도헌금 : 장사라(이옥성) 장세규 장세경 최란희 장은비 장연우 장지우

건축헌금 : 김혜숙

후원헌금 : 농협 (주사랑교회) 351-1002-2982-63

통일선교비전기도회

오후 1:00 한승훈 목사

대표기도 말 은 이

성경봉독 행 2:1~4, 37~41 (신 188)

말씀제목 New Heart(뉴 하트 새 마음)

말씀인도 한승훈 목사

수요 기도회

오후 7:30 한승훈 목사

성경봉독 야고보서 5:13-18 (신 376)

말씀제목 병든 자를 구원하는 믿음 기도

가정·구역예배(목)

오후 2:00 정현숙 권사

성경봉독 열왕기하 2:15-25 (구 562)

대표기도 임명순 사모

말씀제목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

심야기도회(금)

오후 7:30 한승훈 목사

성경봉독 살전 4:13-18 (신 332)

말씀제목 예수님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

새벽 기도회

새벽5:30 로마서강해(월~금)

25일(일) 롬 3:9-20 모두 죄 아래 있다

26일(월) 롬 3:27-31 불의 세상을 품는 하나님

27일(화) 롬 4:1-8 행위와 무관한 칭의

28일(수) 롬 4:9-12 할례와 무관한 칭의

29일(목) 롬 4:13-25 믿음에 의해 구한 언약

30일(금) 롬 5:1~11 성도의 화평과 소망과 화락

(단, 주일은 개인별 자율 묵상)

국외선교(오주교후홍술국)



해외선교(모로코)



북한선교(북한선교위원회)



가타기관 선교

오폰도어즈선교회 한국북한선교연구원

모통이돌선교회 한국성결신문

한국장애인선교회 한국장애인우호용머

⑥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워 임박한 진노와 심판에 대해 경고하라고 명령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겔 33:10~11)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 아니라 나의 삶을 두고 ()하노니 () () 이스라엘 족속아 ()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⑦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남유다 말기의 왕들과 백성을 목자와 양들의 관계로 비유하며 책망하셨는데, 책망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겔 34:2~6)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 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나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 너희가 그 ()를 강하게 아니하며 ()를 고치지 아니하며 ()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 떼가 모든 산과 높은 멧봉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 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니 ()

⑧ 거짓된 목자인 남유다의 왕들과 다르게 하나님은 흩어진 자기 백성을 어떤 모습으로 모으시고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나요? (겔 34:15~16)

()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 아니라 그 ()를 내가 찾으며 ()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를 내가 싸매 주며 ()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모으시고 구원하시는 참 목자를 어떤 방식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나요? (겔 34:23~25)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와 말이 아니라 내가 또 그들과 ()을 맺고 익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 들에 평안히 거하며 수풀 가운데에서 잘지라

(답안을 작성한 주보의 앞면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봉헌사전에 축복기도와 1년 치를 모아 제본해 드립니다)

- ① 유다의 마지막 왕 여호야킨 왕이 바벨론 2차 포로로 잡혀간 지 11이 되던 해에,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의지하던 죄를 물어, 애굽 또한 바벨론에 멸망 당한 이 나라 같을 것이라고 했는데 백향목에 비유했던 이 나라는 무엇일까요?(겔 31:3)
 불지이다 ()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들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 ②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의지했던 앗수르와 남유다가 의지했던 애굽과 그들을 심판하는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무엇 때문이라고 하셨나요?(겔 31:10~11)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 ③ 성경에서 종종 레아(Rhea)로 불려지는 짐승으로 에스겔은 특히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워 교만했던 애굽의 바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과 공간에서만 자유로운 이 짐승에 지나지 않음을 비유하여 경고하셨는데 무엇일까요?(겔 32:2)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 ④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애굽을 어떻게 멸절시키실 것이라고 경고하셨나요? (겔 32:11~12)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 왕의 칼이 네게 오리로다 나는 네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임이여 그들이 애굽의 ()을 폐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 ⑤ 하나님은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까지 악인이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를 바라시는데, 악인들의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 전달자로 에스겔을 세우시기 위해 그의 사명을 무엇에 비유했나요? (겔 33:7~9)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 그들에게 ()할지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

중생

중생 (Regeneration)

주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신 중생의 도리는 실로 기독교의 입문이며 천국시민의 자격을 갖추는 유일한 도리이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3:3). 중생은 곧 영으로 나는 일이니 신비에 속한 영적 변화이며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려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역사로 새 생명을 얻어 그 사람의 심령과 인격 전체에 근본적 일대 변혁을 일으키는 것이니 이는 진실로 천국복음이다.

성결

성결(Sanctification)

이는 교인이 받을 성령 세례를 가리킴이니 주 예수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행1:5)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제자들은 성령의 세례, 즉 성결의 은혜를 체험했으니(행2:1-4) 우리도 모든 사람을 중생으로 인도하고 중생한 처지에 있는 신자들은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인도한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12:14).

신유

신유(Divine Healing)

이는 신자가 하나님의 보호로 항상 건강하게 지내는 것과 또는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음을 얻은것을 가리킴이니 이 은사는 우리 육신을 안전케 하는 복음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모든 신자들에게 이적이 따를 것을 언명하였으니(막16:17-18) 병 낫기 위하여 기도한다든가 안수하는 일은 당연한 특권이다. 그러나 신유를 믿는다 하여 의약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재림

재림(Second Coming)

구약성경의 예언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수육탄생(受肉誕生)이라면 신약 성경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라 할 수 있나니 우리는 공중재림(살전4:16-18)과 지상재림(행1:11)을 믿는다. 요한계시록은 재림을 전적으로 계시한 성경으로 마지막에 [내가 속히 오리라 한 말씀이 세 번이나 거듭 기록되었다(계22:7,12,20). 재림은 신앙생활의 요소이며(살전3:13) 소망이요(살전2:19-20) 경성이 된다(마24:44,25:13).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구역예배가 어려우신 성도님들은 가정예배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순	서	예배진행	인도자	BC	오늘 본문의 연표	Bible
사도신경		다	같이	853	아람과의 전쟁과 아합의 죽음	왕상 22:1~40
찬송가	 찬 407장	다	같이		여호사밧 왕의 통치 이야기	왕상 22:41~50
대표기도		임명순 사모			북이스라엘 아하시야의 등극	왕상 22:51~53
성경봉독	 왕하 2:15~25	윤	독	850	아하시야의 배반의 조짐	왕하 1:1~12
말씀인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	말	은	852	북이스라엘 아하시야의 죽음	왕하 1:13~18
합심기도		다	같이		엘리아 승천과 엘리아 승계	왕하 2:1~14
헌금기도	 찬 549장	말	은		엘리아의 사역 시작	왕하 2:15~25
주기도문		다	같이	835	아합의 아들 요람(여호람) 등극	왕하 3:1~12

■ 들어가는 말

선지자 엘리아는 요단강을 건너 영적 반역의 땅 북이스라엘로 나아갑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 도하 후 모세의 후계자로서의 사명을 시작했듯이, 엘리아도 요단을 건넌으로써 사역의 서막을 공식화 합니다. 선지자 엘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의 시대로부터 예후 왕조의 3대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까지 약 55년 이상 선지자 직분을 수행합니다. 엘리아가 요단강을 가르며 건너는 것을 지켜보았던 여리고의 제자들은 하나님이 엘리아를 엘리아의 공식적인 후계자로 세우셨음을 깨닫고, 자신들의 스승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예우를 갖춥니다. 이후 엘리아의 첫 사역을 통해 엘리아를 존중했던 여리고 성의 사람들은 죽었던 물이 살아나는 은혜를 입게 되었고, 엘리아를 경멸하던 벤엘 사람들은 암곰에 의해 찢겨 죽는 저주를 맞이 합니다. 이 두 성읍의 대조적인 결과는 엘리아를 선지자로 인정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순종을 보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줍니다. 선지자 엘리아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길을 향해 당당히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어떤 태도와 자질이 필요할까요?

첫째, 통찰의 안목이 필요합니다(15~18).

요단강 서쪽에서 요단강을 가르고 당당하게 북이스라엘로 입성하는 엘리아의 모습을 본 제자들은 엘리아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음을 깨닫고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지만, 어리석게도 스승 엘리아의 시체를 찾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엘리아의 승천에 대해 크게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아의 영만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엘리아의 몸은 필요가 없으니 산이나 골짜기에 던져졌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아의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엘리아를 찾자고 간청한 것입니다. 이에 엘리아는 “보내지 말라”며 엄히 금지하지만 그들은 시신을 찾아 장사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여겼는지 엘리아가 무색할 때까지 강경하고 끈질기게 요청합니다. 수색대가 3일 동안 엘리아를 찾아 헤맸지만 당연히 승천한 엘리아를 찾을 리가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불신앙이자 믿음 없고 강박한 세대의 표본입니다. 첫째 엘리아를 스승으로 부르기는 했지만 정작 스승의 첫 명령에 대한 불순종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들은

자신의 이성적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보다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아의 승천에 대하여 머리로는 이해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승천에 대한 사실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들의 고집은 엘리아의 사역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고집으로 사흘 동안 수색을 강행했고 수색하는 동안에 엘리아의 발걸음은 여리고에 묶여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통찰하는 눈을 갖아야 합니다.

둘째, 권능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19~22)

여리고에 머무는 동안 주민들은 성읍의 수질 문제로 호소합니다. 여리고는 요단 강과 사해 북부가 만나는 지점에서 서쪽 8k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발 약 250m에 위치한 이곳은 “종려나무 성읍”이라 불리는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물에 유해물질이 있어 사람이나 식물의 생산력과 생명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나쁜 수질과 여리고의 진멸에 대한 과거의 저주(수 6:26~27)는 여리고 성읍의 재건(왕상 16:34)는 무관치 않습니다. 주민들이 엘리아에게 와, 엘리아를 “우리 주인”이라 부르며 하나님의 긍휼과 도움을 청합니다. 엘리아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고 명령합니다. 여리고 주민들은 선지자의 말에 순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로 마라의 쓴 물에 나무를 던져 단물이 되게 하신 것처럼(출 15:25) 엘리아는 물의 근원에 소금을 던졌습니다. 엘리아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 하신다’고 외치며, ‘하나님’이 물을 고치셨으므로 더 이상 물에서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라고 공포합니다. 말씀 대로 물은 소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주와 불임의 땅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입니다. 그 땅을 고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 땅을 고쳐주소서! 주여, 대한민국을 살려주소서.

셋째, 위엄과 권위를 붙들어야 합니다(23~25)

반면에 벤엘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까지 악했습니다. 엘리아가 벤엘로 올라갈 때 그곳의 아이들은 ‘대머리며 올라가라’는 조롱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가부장적 문화가 엄격한 사회에서 어린 아이들이 외모로 어른을 조롱한 다는 것은 그 시대의 도덕과 윤리가 얼마나 해이해진 상태인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함부로 말하며 모욕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악한 행동입니다. 참다못한 엘리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고, 곧바로 수풀에서 암곰 두 마리가 나와 아이들을 찢어 죽이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태에 대한 심판은 그 누구에게라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참된 영적 권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 결론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시대처럼 하나님의 인격과 권위가 존중받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의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위로와 소망을 찾기가 어렵 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소망을 예수님의 은혜로부터 경험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땅에 행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반대와 핍박, 말씀의 권능과 위엄이 무시되는 풍조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 는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도덕적 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